중동 급한 불 끈 G7, 러에 '우크라 종전' 압박 재시동

트럼프, 석유 제재 재개 가능성 언급
정상들, 우크라에 방공자산 지원 약속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의 한 건물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불길에 휩싸여 있다. AP·연합뉴스

미·이란 종전 합의로 한숨 돌린 서방이 장기 과제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은 16일(현지시간) 오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실무 회담의 결과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회담 후 한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AFP에 "정상들은 오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도자들은 또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흐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압박 강화 기류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합의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봤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발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일시 해제했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유예했다. 이제 석유가 넘쳐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곧 그렇게(제재 재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또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 동맹국 사이에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가 매우 협조적이었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미국과 유럽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낙관론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전황이 호전된 지금, 그동안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대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길 기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용감하게 전선을 지켰고, 러시아의 피로감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할 때"라고 적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 자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G7 정상들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제 유가 배럴당 70달러대 '석달 만에 최저'

브렌트유, 종전 합의에 5.1% 하락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16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0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월 28일 개전 직후 첫 거래일인 지난 3월 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7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72.48달러, WTI는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했다. 개전 직전 가격과 비교하면 브렌트유는 9%, WTI는 13% 오른 수준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타결이 임박한 지난 11일 이후 4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이란이 석유 및 석유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일시 면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란 재건에 韓기업 등 454조 원 기금 조성"

합의안에 민간 기금 조달 방안 포함
美 정부 자금·보조금 포함 안 될 듯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는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그 금액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출자 약정된 상태라고 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소식통은 이들 기업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금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요 세부 사항을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40여 년간 유의미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방일보,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

국방일보는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조사단과 함께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명단에 있는 수훈 당사자이거나 수훈자를 아는 분은 조사단 공식 전화 번호 1661-7625로 연락하면 무공훈장 수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군번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기성문	이용원	부산 광역시 동래구	김달수	신태순	부산 광역시 연제구	강병철	안영춘	부산 광역시 중구	김대생	이재춘	부산 광역시 서구	강대원	이문기	부산 광역시 사상구	강경호	이구수	부산 광역시 금정구
김규연	이원이		김정식	오태갑		권태익	우병찬		김소암	이창준		권태익	이성우		권태익	이문근	
김우암	이을구		김춘호	유치복		김달수	이동선		김진수	이후근		김국진	이용만		김순영	이용원	
김인조	이태규		김해곤	이득봉		김대영	이민철		문종호	장이도		박상준	이우돌		김우규	장회남	
박문하	이희권		문종호	이문우		김덕봉	이인수		문출성	장준복		박영업	임월수		김자성	전야관	
박정남	전야관		박인영	이병순		김삼암	이호진		박일만	정수석		박판용	정만수		김종수	정삼천	
손진근	정기숙		박재찬	이수용		김성도	정재섭		백옥식	조국태		엄재동	천정대		오국희	조영수	
신정기	정일호		박준일	이태규		김용길	조영수		변근택	조창원		유정기	최동규		오영국	최득용	
오만준	조선학		방상조	장춘근		박갑술	최삼도		서용덕	최영화		이강섭	허모		우오현	최치학	
옥귀현	황명수		신상출	하재삼		박정남	최태용		이선조	최일용		이명기	황명수		이강섭	추소준	